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된 양동마을 주민의식 변화

-1994년과 2002년의 비교 연구-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A Consciousness Change of Yangdong Village's Residents connected with Cultural Asset Protection Law -A Comparative Study of 1994 and 2002-

Kang, Dong-Jin

Department of Urban Design · Development, Kyung Sung University

ABSTRACT

The Yangdong traditional historic village is a representative village having symbolic historic values and unique combinations of natural, cultur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a Korean historic settlement environment, which has been protected by Cultural Asset Protection Law since 1984. Now, in spite of its potential diverse powers, national strategies concerning Yangdong village do not have satisfactory direction and results. In consideration of this notion, this paper is designed to find an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Yangdong villag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nges in Yangdong village between 1994 and 2002, and through these comparisons, to diagnose and predict future aspects of Yangdong village.

Primary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 investigation between 1994 and 2002. The living conditions, production, and consciousness of residents of Yangdong village are utilized as standards of analysis. The final analysis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because of the Cultural Asset Protection Law, noticeable changes have occurred in Yangdong village over the last 8 years. These changes are different from the ones occurring in general farm villages. Also, most issues related to the changes are interpreted as occurring as a result of the top-down approach, which disregards the opinions and wishes of residents.

For this, introduction of renovation concept that emphasizes modernization of life and production

† **Corresponding author** : Dong Jin Kang, Dept. of Urban Design · Development, Kyung Sung University, Busan 608-736, Korea. Tel. : +82-51-620-4792, E-mail : conkang@ks.ac.kr

space is urgently require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hat concern for the traditional historic village should diversity and expand, and not concentrate solely on the cultural properties and architecture-oriented historic elements.

Key Words : Yangdong Village, Traditional Historic Village, Residents Consciousness, Cultural Asset Protection Law

I. 서론

우리의 전통역사마을¹⁾은 문화재적 가치와 함께 일상 생활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유한 전통문화를 인지하고 체험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역사문화자원 중의 하나이다. 원래 전통역사마을은 철저한 혈연과 지연에 기초를 두고 사회적 협동관계 속에서 경제기반의 확보와 공유재산을 가짐으로써 형성·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농업이라는 생산양식과 상속과 분가라는 마을 자체의 재생산과정을 통해 마을이 유지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근대화로 인해 마을과 개별농가의 특성이 분화되어 전문화되기 시작하였고, 농업은 상대적으로 열등산업으로 전락하게 됨에 따라 마을 자체의 재생산 과정도 자연히 단절되거나 변질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마을의 자연스런 변화가 시대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의 변화속도에 미치지 못해 점차 마을내·외에서 여러 갈등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통역사마을은 사회·경제적으로 외지로 나간 이촌민들에게는 정체성 확보와 입신양명의 기반이 되지만, 마을을 지키는 주민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마지막 경제적 보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양면성으로 인해 우리의 전통역사마을은 “전통 보존”과 “정주환경의 유지”라는 대립된 이슈 속에서 미래 비전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 들어,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강한 역사성을 보유한 6개의 전통역사마을들이²⁾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중요민속자료, 사적)로 지정되었다. 지난 수 백년 동안의 마을변화과정 속에서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등장한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전통역사마을 자체가

문화재로 취급됨에 따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 속에서 본 연구는 1984년 12월 24일에 중요민속자료(189호)로 지정·보호받고 있는 경주 양동마을³⁾을 사례로 1994년⁴⁾과 2002년에 조사된 주민의식의 비교를 통해, 10여 년 동안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마을변화의 분석을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II. 연구방법

1. 연구사

1) 연구동향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외부영향에 의한 마을변화를 분석한 연구들과 양동마을 자체에 대한 연구들로 구분이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 마을근대화, 기계화, 시설재배, 새마을운동 등으로 인한 마을변화를 다룬 최재석(1972), 이창기(1979), 김덕현(1989), 김춘동(1993), 문옥표(1994)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관광지화, 문화재지정 등으로 인한 변화를 다룬 연구로는 송성인(1984), 박재서(1990), 강동진(1995)의 연구가 있다.

후자인 양동마을 자체에 관한 연구들은 역사학, 국문학, 민속학, 사회학, 인류학, 건축학, 조경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시도되었으며, 현재 공식적인 연구로만 단행본 4권, 보고서 3권, 학위논문 30여 편 등에 이른다. 최초로 김광연(1970)의 연구로 인해 일반인들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 후 여영부(1971)는 양성(兩性)간

의 사회적 갈등을 다루었고, 최재석(1972)은 새마을운동으로 인한 마을의 변화 양상을 연구하였고, 김태영(1973)은 농지개혁으로 인한 변화양상을, 마을통혼권과 신분구조를 다룬 여중철(1974, 1975, 1980) 등의 연구들이 70년대에 진행되었다. 양동마을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 공식적인 조사 연구는 5회가 있었으며, 김정기와 김광연(1971), 장수근과 맹인재(1972), 이광규와 여중철(1977), 경상북도(1979), 경주군(1994), 경주시(2001) 등이 있다. 70년대에 진행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양동마을이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조사보고서와 각종 논문들은 양동마을의 기록 작업에 큰 공로를 하였다.

8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건축, 조경학과 관련한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마을의 인문과학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룬 『良佐洞研究』(인문과학 연구소, 1990)라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서는 연구 주제의 고갈로 인해 사회학·인류학 분야의 연구는 몇 편에 불과하며, 건축학·조경학에서도 기존과 유사한 패턴의 연구들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연구의의

이러한 연구들을 본 연구의 목적과 연계하여 볼 때, 크게 2가지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마을원형 연구에 치중함으로써, 현실 상황에서 다양한 변이 및 새로이 적용된 모습과 의미 등은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시대에 따라 적응하여 온 변화과정과 주변 지역과의 관계 변화 등과 관련된 양동마을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⁵⁾.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동마을의 현실적인 문제 파악을 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려는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는 양동마을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같은 항목과 내용으로 시행된 1994년과

2002년의 설문조사 결과의 비교를 통해, 8년 동안 진행된 양동마을의 변화내용을 파악한다. 통계처리는 1994년과 2002년의 설문 결과치를 단순통계처리한 후, 응답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마을설문조사는 공식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994년의 조사는 10월 28~30일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생 6인에 의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2002년의 조사는 8월 19~21일까지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학생 5인이 1차 조사시와 같은 내용의 설문지를 통해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방법은 가구별로 방문하여 조사원이 직접 주민과 면담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였다. 설문응답율은 1994년의 경우, 74.8%(총 123가구 중 92가구), 2002년에는 67.2%(총 119가구 중 80가구)에 머물렀지만, 20%에 이르는 마을내 부재가구와 유동인구를 고려하면 거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설문항목은 총 17항목(2002년의 경우)으로, 일반사항(3개 항목), 생활관련사항(5개 항목), 생산관련사항(4개 항목), 주민의식관련사항(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2002년의 조사에서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전통역사마을의 세계문화유산(유네스코) 지정에 관한 주민들의 생각을 묻기 위한 항목(1개)을 추가하였다⁶⁾.

3. 분석의 틀

1) 전통역사마을의 기본 체계

전통역사마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씨족마을은 일반적으로 농경지, 임야 및 주거지로 구성된 공간 속에서 친족 내지 근린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계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 생산을 하고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즉 물리적 환경, 그 속에서의 삶과 생산활동, 사람들과의 관계(조직과 커뮤니티) 등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어, 하나의 조건이라도 파괴가 되면 이 체계의 온전한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러나 법보호 대상인 전통역사마을의 경우, 이러한 체계가 다른 양상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문화재보호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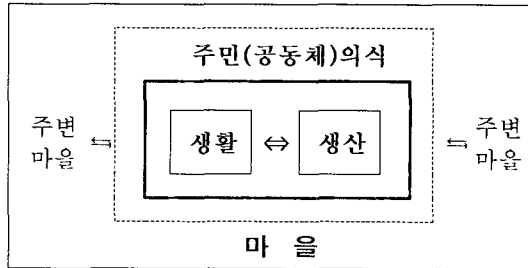


그림 1. 마을체계 모식도

현재 문화재보호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7조 2항 등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 및 경미한 형상변경의 범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정주대상이 아니거나 단위문화재일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질적으로 법보호대상의 전통역사마을에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단위문화재 및 경관보호를 위한 물적 측면의 정책들(주거변형금지, 경관저해시설로 분류되는 각종 부속시설의 규제, 가축사육금지 등)이 주로 적용되어 왔고, 이로 인해 자연스런 마을변화의 과정이 단절되어 마을의 생활, 생산, 주민의식 등 전반에 걸쳐 왜곡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2) 분석 항목(표 1 참조)

법보호대상인 전통역사마을이 변화되고 있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마을체계를 생활측면, 생산측면, 주민의식측면 등으로 분류하고, 마을변화와 문화재보호법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분석 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의 틀로 삼는다.

「생활」과 관련된 설문들은 주민들의 생활만족도, 특히 주거환경과 관련된 변화내용을 파악하여 마을생활과 관련된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들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분석항목으로 1) 인구 구성, 2) 주거환경의 문제점과 개선의향, 3) 서비스 체계 만족도로 구분한다. 특히 주거환경의 문제점과 개선의향에 관해서는 “주거환경의 문제점”과 “기존수리 대상과 희망수리대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생산」관련 설문들은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한 생산 방식의 변화와 그 경향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미래 양동마을의 모습을 예측하기 위함이다. 분석항목은 1) 생산 방식과 2) 농기계관리관련으로 구성한다. 「주민의식」 관련 설문들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양동마을의 미래 위상과 변화에 대한 현재의 생각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분석항목은 1) 법지정에 대한 의견, 2) 마을의 미래전망과 희망, 3)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한다.

III. 결과 및 고찰

1. 생활관련

1) 인구구성(표 2 참조)

70년대 이후 양동마을에서 나타나는 인구구성의 특징인 30대 이하 인구의 급감, 30대~50대 인구의 감소, 60대 이상 인구의 급증 등은 일반농촌마을의 변화패턴

표 1. 분석의 틀

	기 준	방 법	목 적
생활 관련	인구구성	기초통계(강동면사무소)	-주민들의 생활만족도 특히 주거환경과 관련된 변화내용 파악 -마을생활과 관련된 법제도적 문제점 도출
	주거환경의 문제점, 개선의향	설문, 면담, 현장관찰	
	서비스체계 만족도	설문, 면담	
생산 관련	생산방식	설문, 면담	-법제도로 인한 생산방식의 변화와 경향 파악 -마을생산과 관련된 법제도적 문제점 도출
	농기계관리 관련	설문, 면담, 현장관찰	
주민 의식 관련	법지정에 대한 의견	설문, 면담	-주민들이 생각하는 양동마을의 미래 위상 파악 -마을변화에 대한 현재의 주민의견과 기대치 도출
	마을 미래전망과 희망	설문, 면담	
	세계문화유산 지정 의견	설문, 면담	

표 2. 인구구성

단위: 인

연령 년도	70세 이상	61~70세	51~60세	41~50세	31~40세	21~30세	11~20세	10세 이하	계	가구수	가구 평균
1972▼①	36	58	76	89	96	141	223	110	809	166	4.87
1979▼②	40	57	83	90	56	116	189	115	746	151	4.94
1986▼③	40	52	82	60	49	72	117	57	529	134	3.95
1994▼④	43	66	63	29	42	91	51	16	401	123	3.26
2002▼⑤	60	63	45	36	45	39	31	22	341	119	2.86

자료: ▼① 이광규, 여중철(1977),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북편」, p.50.

▼② 경상북도(1979), 양동마을 조사보고서, p.20.

▼③ 이창기(1991), 「양동의 사회생활」, 양좌동연구,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p.103.

▼④ 1994년 8월 강동면사무소: 1994년 12월의 조사보고서에서는 128호(476명)이나, 현장조사결과 실제 가구수는 123호였다

▼⑤ 2002년 8월 강동면사무소

표 3. 주거환경의 문제점 (3항목씩 응답)

단위: 호(%)

연도	분류	집이 노후	진입로 협소	내부 협소	법으로 인한 수리 불가	비위생적	기타	조사가구수(%) / 총응답분항수
1994		31(33.7)	17(8.8)	25(27.2)	69(75.0)	52(56.5)	14(15.2)	92(100) / 208
2002		35(43.8)	9(11.3)	16(20.0)	38(47.5)	17(21.5)	14(17.5)	80(100) / 129

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4년과 2002년을 비교하여 보면 몇 가지의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타계층 인구추세와 달리 10대와 20대의 인구의 대폭적인 감소이다(50.8% 축소).

이에 반해 70년대 이후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던 30대~40대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지난 8년 동안 다양한 목적으로 전입한 가구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고⁷⁾, 이것은 10세 이하 인구가 감소하는 일반농촌마을과 달리 10세 이하의 인구가 증가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인구의 감소폭에 비해 가구수의 감소폭이 거의 없는 것은 완전히 마을을 떠나지 않고 부분이주를 하는 양동마을의 특이한 이주패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구당 인구수가 3.26명에서 2.80명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실제 취학연령(15~25세)을 제외한 실가구원수는 2.5인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주거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의향(표 3 참조)

현재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같

등의 주원인은 가옥복원문제이다. 이는 합리적인 리노베이션의 원칙 없이 무리하게 원형복원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오히려 임의적인 불법개조를 통한 가옥변형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더욱 큰 모순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1994년에는 '법으로 인한 수리 불가(75%)'와 초가지붕 및 화장실 문제 등으로 인한 '비위생적(56.5%)'이라는 항목이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반해 2002년에는 '법으로 인한 수리 불가' 항목은 대폭 낮아졌으나(75.0%→47.5%)⁸⁾ 여전히 가장 높은 불만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위생적'이라는 문제점도 매우 낮아진 것(56.5%→21.5%)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가옥복원시 위생과 관련된 화장실, 부엌, 목욕탕 등의 시설개선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94년에 비해 2002년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이에 대하여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고⁹⁾ 특히 고가

(古家) 위주의 편중된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최근 5년간 진행된 주거환경의 “기존수리대상과 희망수리대상”을 조사하여 보았다. 1994년에는 기존수리대상이 ‘부엌(44.4%),’ ‘난방시설(43.2%),’ ‘목욕탕(19.8%)’ 등의 내부시설들이 ‘마당창고(4.9%)’ 및 ‘화장실(1.2%)’ 등의 외부시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것은 금지되어 있는 내부시설에 대한 수리를 법규제와는 상관없이 그동안 진행하여 왔고, 국가지원을 받은 가구들도 개인부담으로 내부시설에 대한 수리를 불법으로 진행하여 온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1994년의 희망수리대상이 ‘화장실(23.9%),’ ‘마당창고(21.8%),’ ‘전체(55.4%)’ 등 외부공간(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과 관련이 된다¹⁰⁾.

이에 반해 2002년에는 부엌의 수리비율은 1994년과 비슷하나, 난방의 수리비율은 급격히 감소(43.2%→15.0%)하고 화장실의 수리비율은 급증(1.2%→16.3%)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난방의 경우 90년대 중반까지 어느 정도 보일러식(연탄 또는 기름)으로 모두 교체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난방시설의 희망수리대상이 2.5%에 불과하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2002년에는 화장실(31.2%)과 목욕탕(43.8%)에 대한 수리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여전히 불비한 위생시설에 대한 수요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수리에 대한 요구비율이 급감(55.4%→8.8%)한 것은 원형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가옥복원정책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분수리를 통한 시설현대화를 원하고 있는 주민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4 참조).

3) 서비스체계 만족도(표 5 참조)

“서비스체계 만족도” 조사에서는 1994년의 경우 ‘법지정으로 인한 피해(56.5%),’ ‘소득원 부재(45.7%),’ ‘교통 불편(39.1%)’ 등이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나타났고, 2002년에는 ‘교통 불편(61.1)’과 ‘법지정으로 인한 피해(33.8%)’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소득원 부재’에 대한 불만 정도가 급감(45.7%→15.0)한 사실과 오히려 증가가 예상되던 ‘자녀교육문제’가 급감(21.7%→10.0%)한 것이다. ‘소득원

표 4. 기존수리대상 및 희망수리대상 (3항목씩 응답)

단위: 호(%)

년도	분류	지붕	부엌	난방 시설	화장실	마당 창고	목욕탕	전체	기타	조사가구수(%) 총응답문항수
기존 수리 대상	1994	27 (33.3)	36 (44.4)	35 (43.2)	1 (1.2)	4 (4.9)	16 (19.8)	19 (23.4)	2 (2.4)	92(100) 157
	2002	15 (18.8)	35 (43.8)	12 (15.0)	13 (16.3)	2 (2.5)	5 (6.3)	15 (18.8)	3 (3.7)	80(100) 100
희망 수리 대상	1994	15 (16.3)	6 (6.5)	4 (4.3)	22 (23.9)	21 (21.8)	14 (15.2)	51 (55.4)	20 (21.7)	92(100) 153
	2002	13 (16.3)	2 (2.5)	2 (2.5)	25 (31.2)	6 (7.5)	35 (43.8)	7 (8.8)	9 (11.3)	80(100) 99

표 5. 마을의 전반적인 문제점 (3항목씩 응답)

단위: 호(%)

년도	분류	소득원 부재	주거환경 노후	일손 부족	교통 불편	자녀교육문제	시장 거리	편의시설부재	법지정	기타	조사가구수(%) 응답문항수
1994		42 (45.7)	20 (21.7)	17 (18.5)	36 (39.1)	20 (21.7)	19 (20.6)	26 (28.3)	52 (56.5)	14	92(100) 246
2002		12 (15.0)	25 (31.3)	9 (11.2)	49 (61.1)	8 (10.0)	10 (12.5)	19 (23.8)	27 (33.8)	11 (13.8)	80(100) 170

부채'에 대한 불만이 급감한 것은 주민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정비를 통한 소득향상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소득 향상에 대한 의지 약화는 '법지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응답이 감소한 것(56.5→33.8%)과 깊은 연관이 있다.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급감은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가구가 감소하였고, 마을내 양동초등학교가 폐교의 위기를 넘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마을내 실제 생산활동가구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히려 마을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불편'에 대한 급증(39.1%→61.1%)은 지난 10여년 동안 마을대중교통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승용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주민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법지정 후 20년이 지나면서 주민들 스스로 마을생활패턴에 적응하여 가고 있으나, 법지정에 대한 기대치가 감소되어 "서비스체계 만족도"에 대한 불만의 강도가 많이 약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 생산관련

1) 생산방식¹¹⁾(표 6 참조)

주민의 78.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 최재석(1972)의 조사결과¹²⁾에 비해 90년대 이후에는 생산방식이 매우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 1994년 조사에서는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업가구가 35.9%(1994)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되어 양동마을의 생산체계가 80년대 이후 법지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02년 조사에서도 농업가구가 감소추세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전체 농업가구(주업, 부업 포함)의 수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농업을 주업으로 가구는 1994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35.9%→52.5%)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법제도의 규제로 인해 일반농촌에서 시도되고 있는 축산, 시설재배 등의 농업활동과 특산물개발 차원에서의 전통산업활동¹³⁾ 등이 제약되어 나타나는 생산활동의 위축현상¹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구의 증가현상은 또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농업가구 대다수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이어서 새로운 차원의 변화가 모색되지 않는다면 5~10년 후에는 현재까지 양동마을 유지에 큰 맥을 이루어 온 농업활동이 차단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2) 농기계 관리 관련(표 7 참조)

표 6. 가구별 생산방식 현황

단위 : 호(%)

주 수단	1994							2002						
	농사	직장	자녀 송금	가축 사육	기타	누락	조사가구 (%)	농사	직장	자녀 송금	가축 사육	기타	누락	조사가구 (%)
농사		2 (2.2)	6 (6.5)	8 (8.7)	2 (2.2)	15 (16.3)	33호 (35.9)		2 (2.5)	13 (16.3)	1 (1.2)	2 (2.5)	24 (30.0)	42호 (52.5)
직장	6 (6.5)			2 (2.2)	3 (3.3)	5 (5.4)	16호 (17.4)	1 (1.2)	-	2 (2.5)	1 (1.3)		6 (7.5)	10호 (12.5)
자녀송금	13 (14.1)	1 (1.1)				12 (13.0)	26호 (28.7)	4 (5.0)	1 (1.3)				10 (12.5)	15호 (18.8)
가축사육	1 (1.1)						1호 (1.1)	1 (1.2)					1 (1.3)	2호 (2.5)
기타	6 (6.5)		2 (2.2)	3 (3.3)		5 (5.4)	16호 (17.4)	3 (3.8)			2 (2.5)		6 (7.5)	11호 (13.8)
조사가구(%)	26 (28.3)	3 (3.3)	8 (8.7)	13 (14.1)	5 (5.4)	37 (40.2)	92호 (100)	9 (11.2)	3 (3.8)	15 (18.8)	4 (5.0)	2 (2.5)	47 (58.8)	80호 (100)

표 7. 농기계 관리상의 문제점 (보유가구만 응답)

단위: 호(%)

년도	분류	보관장소 없음	수리의 곤란	고가의 가격	운전의 곤란	보유가구
1994		17(63.0)	5(18.5)	5(18.5)	-	27호(100)
2002		35(79.5)	5(11.4)	3(6.8)	1(2.3)	44호(100)

1994년에는 농기계보유율이 전체의 29%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는 55%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편적으로 일반농촌마을에서는 농기계관리의 문제점으로 '수리의 곤란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해, 양동마을의 경우 '보관장소 없음'이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63%이었던 '보관장소 없음'에 대한 불만이 2002년에는 79.5%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문화재 및 주거용 건축물의 외관정비에 주력하는 현 국가정책의 오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¹⁵⁾. 이처럼 보관장소가 없음으로 인해 고가의 농기계들이 마을곳곳에 방치되어 있어 경제적 및 경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3. 주민의식관련

1) 양동마을의 법지정에 대한 의식¹⁶⁾(표 8 참조)

1994년의 조사 결과, "법지정으로 좋은 점"으로는

'마을 및 古家 보존(32.6%),' '마을의 보존(27.2%)' 등을 들었고, 나쁜 점의 경우 '건물의 신개축금지'에 대한 불만이 63%에 달했지만 예상외로 관광객에 대한 불만이 적어(8.7%) 하회마을 같이 관광으로 인한 훼손현상은 1994년에는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2002년의 경우¹⁷⁾에는 0%이었던 '좋은 점이 없다'가 53.8%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법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를 지적한 비율의 급증(8.7%→28.8%) 현상은 최근 관광객의 급증현상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연계되어 나타나는 것이며, 1994년과는 또 다른 갈등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2년의 조사에서는 1994년에 비해 "법지정에 대한 불만"이 다양해진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화장실 위생문제', '기타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부족 문제', '차량으로 인한 먼지와 소음', '벌레가 많음' 등의 의견이 있으며, 이것은 마을생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들이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마을의 미래전망과 희망(표 9 참조)

1994년의 조사에서는 "마을의 미래전망"을 '농업전용지'로 예상한 비율이 45.6%에 이르렀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마을전망에 대해 회의가 컸고, 급변하는 주변지역의 상황에 비해 양동마을 주민들의 비전이 상실된 상

표 8. 법지정으로 인한 좋은 점 및 나쁜 점

단위 : 호(%)

연도	분류	좋은 점					나쁜 점			합계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	마을보존이 되었다.	마을내 古家들의 보존이 되었다.	공기가 좋다.	좋은 점 없다	누락	누락	누락	
1994	좋은 점	15(16.3)	25(27.2)	30(32.6)	4(4.3)	-	18(19.6)	92	92	
	나쁜 점	58(63.0)	8(8.7)	10(10.9)	6(6.5)	3(3.7)	7(7.6)	92	92	
2002	좋은 점	10(12.5)	1(1.5)	12(15.0)	7(8.8)	43(53.8)	1(1.5)	12(15.0)	86	
	나쁜 점	45(56.2)	23(28.8)	7(8.8)	4(5.0)	4(5.0)	3(3.8)	8(10.0)	102	

표 9. 마을의 미래전망

단위 : 호(%)

년도	분류	농업 전용지	농·타용도 혼합지	주거단지	특화된 민속관광지	잘 모름	기타	조사가구
1994		42(45.6)	18(19.6)	-	5(5.4)	23(25.0)	4(4.4)	92호(100)
2002		23(28.8)	-	4(5.0)	28(35.0)	24(30.0)	1(0.2)	80호(100)

표 10. 미래 마을관리의 희망

단위 : 호(%)

년도	현재상태 유지	특화형 관광지	소극적 개선	적극적 개선	농촌+관광지	기타	조사가구
1994	17(18.4)	26(28.3)	6(6.5)	25(27.2)	17(21.5)	1(1.1)	92호(100)
2002	22(27.5)	10(12.5)	32(40.0)	12(15.0)	4(5.0)	0	80호(100)

표 1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대한 의견

단위 : 호(%)

찬성	지원 필요	반대	주민불편조래	모른다	관심없다	조사가구
22(27.5)	32(39.9)	10(12.5)	1(1.3)	11(13.8)	4(5.0)	80호(100)

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에 반해 2002년의 경우, '농업전용지'로의 전망은 급감(45.6%→28.8%)하였고, 오히려 '특화된 민속관광지'에 대한 전망이 급증(5.4%→35.0%)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들어 양동마을이 새로운 민속관광지로 알려지면서 나타나는 관광객의 급증과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과 관련된 주민의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민속관광지에 대한 전망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주민 스스로가 원하는 "미래 마을관리의 희망"은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흥미로운 것은 1994년의 경우 관광산업 위주의 '특화된 관광지'와 '농촌+관광지'로의 마을관리와 '적극적인 개선'을 희망한 가구가 77%에 이르렀으나, 2002년의 경우 이 비율이 급감(77%→32.5%)하였다. 이에 반해 '소극적인 개선'과 '현재 상태의 유지'를 희망하는 비율이 급증(24.9%→67.5%)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90년대 초반 관광지향적인 마을발전을 원하였던 주민들이 이제는 전통적인 마을 분위기와 이미지의 보전을 희망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양동마을의

미래가 민속관광지로 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상업화되고 있는 타마을과 달리 양동마을은 원형을 바탕으로 하는 점진적인 변화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대한 의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대한 의견"을 설문한 결과, 67.4%에 이르는 주민이 긍정적인 생각('찬성'과 '지원필요' 포함)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32.6%의 주민이 부정적('모른다'와 '관심없다' 포함)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13.8%만이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세계문화유산의 지정을 통해 양동마을의 원형보존에 대한 기대감과 지금까지의 국가정책과 다른 새로운 발전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가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1. 결론

전통역사마을은 일반 단위문화재들과는 달리 규모가 크고, 다양한 형상과 유형을 가진 물질, 비물질 요소들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역사마을의 전체를 동결보존 하려는 접근으로 인해 마을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단위사업 위주의 건축물 복원에만 치중해 온 오류로 인해 주민들을 자신의 생계에만 더욱 급급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공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오히려 마을에 대한 무관심으로 변질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양동마을의 고유성을 대변하던 마을경관과 장소들은 돌보지 않아 급격하게 황폐해져 가고 있다.

또한 특별한 철학과 방법론 없이 마을정비가 진행되어 시설투자 효과 외에는 주민들에게 별 이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과 생산에 관련된 배려가 부족하여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누적되면서 양동마을 주민 스스로 국가의 각종 추진사업에 대해 소극적이고 배타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 중, 의미를 가지는 변화양상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측면

지난 8년 동안의 전입한 가구들로 인해 마을에 새로운 차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30~40대의 비교적 젊은 가구(11가구)와 타성가구(7가구)의 전입으로 인해 강하게 내려오던 중범적 질서가 약화되어 인지되고 있지만¹⁾, 오히려 이들로 인해 마을에 활력이 제공되는 또 다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가옥복원으로 인해 어느 정도 위생관련 문제들은 다소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여전히 주거환경의 내부수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현대화된 생활에 융통성을 부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양상들은 증가가 예상되는 전입가구들과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현대화에 대한 수요와 요구에 대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2) 생산측면

소득원의 개발부족으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예측되

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구의 증가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된다. 현재 경주시에서는 양동마을이 속한 안강생활권에 포함의 철강관련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의 배후주거단지를 계획하고 있어 양동마을에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70년대 초반 풍산금속이 안강에 설립되어 이농대상 주민들이 일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마을의 이농현상이 완화되었던 선례를 통해 추측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농기계보유가구의 약 80%가 지적하고 있는 “보관장소가 없다”라는 문제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양동마을에서의 정상적인 농업활동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며, 추후 농업인구의 감소는 물론 경지조건에 따라 부채자 소유의 토지에서는 휴경화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들은 양동마을에 대한 인식이 단위문화재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지역적인 시각 속에서 다양한 지원과 확장된 관리개념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3) 주민의식측면

법지정에 대해 50%를 상회하는 “좋은 점이 없다”라는 극단의 부정적인 인식(1994년 조사에서는 0%)과 9%에서 30%대로 상승한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응답을 통해 볼 때, 정주환경으로서 양동마을의 조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스스로 양동마을이 상업화된 민속관광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소극적인 정비와 개선을 통해 마을의 고유한 원형이 보전되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뛰어난 역사성과 함께 풍부한 자연성을 가진 농촌마을로서의 양동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향수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자원의 상품화만이 중시되어 시설투자 효과 외에는 지역주민들과 마을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는 선례들과는 다른 접근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2.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네 가지의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마을 내 비문화재 공간(시설)에 대한 부분현대화를 위한 기준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주민들은 양동마을이 역사성과 전통성을 살리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까지 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제대로 된 원형조사가 수반되지 않고 큰 줄기가 없는 국가의 강제적인 계획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비문화재 공간(시설)에 대한 정비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공공(국가와 지자체), 전문가, 주민이 함께 하는 준공공단체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현재 마을내의 갈등들은 모두 공공, 관광객 그리고 마을(주민) 간의 직·간접적인 의사소통의 단절 때문에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대안관광의 형태로 문화관광, 역사체험관광 등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전통역사마을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지자체, 주민단체, 주민, 관광객 등이 상호연계와 보완관계 속에 놓여야 하고, 특히 공공(국가와 지자체)과 관광객의 직·간접적인 연결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준공공 성격의 마을단체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¹⁹⁾.

셋째로는 “관광객 자체의 의식수준 향상의 필요성”을 인식한 점이다. 주민들은 관광객이 자질을 갖추고 마을을 방문해 주길 바란다. 일정한 사전지식 뿐 아니라 관광과정에 있어서의 기본 예절과 보다 깊은 문화적 인식을 지니고 마을을 제대로 인식해 주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관광객의 자질 부족문제로 인해 주민들은 양동마을의 변화추세에 대해 크게 염려하고 있으며, 관광지향적인 국가정책에 대해 점차 소극적이고 배타적인 양상으로 변해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재보호법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식한 점이다. 전통역사마을은 역사성이라는 시간적 차원의 관점에서 벗어나 농촌측면에서의 주민생활과 생산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의 사회·경제·환경·경관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고 ‘원형유지와 행위금지’만이 아닌 ‘유도’와 ‘권장’ 위주의 정책을 담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을조례형식)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추후 연구과제

전통역사마을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의 근원은 마을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국가의 일방적인 하향적 정책들과 결합되면서 각종 갈등을 낳고 있다. 이러한 현 체제와 정책 속에서는 점차적으로 활발한 관광의 개입이 필연적이다. 일반적으로 지역관광산업의 도입은 주민보다는 먼저 위탁, 숙박, 편의시설 등의 시설투자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에 따라 먼저 물리적 경관변화가 일어나며, 그 후 마을 내·외의 관광종사자, 비종사자, 관광객들과의 각종 갈등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후 연구과제는 관광개입으로 인한 마을의 변화과정을 재조정할 수 있는 연구들이 주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주민에게 마을거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방안연구, 마을내 비문화재의 정비를 위한 지침개발연구, 주민과 관광객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연구 등이 해당되며, 또한 1994년과 2002년에 이어 일정한 시기마다 지속적인 마을모니터링의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들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1) 전통역사마을은 전통마을, 민속마을, 전통민속마을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 왔으나, 2002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ICOS-MOS한국위원회에서 공동주최한 국제심포지움(주제: 전통역사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종합적으로 개념정의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를 사용한다.
- 2) 안동화마을, 경주양동마을, 제주성음마을, 낙안읍성, 아산의암리마을, 고성왕곡마을이 해당된다.
- 3) 양동마을은 경주 손씨(慶州 孫氏)와 여강 이씨(驪江 李氏)의 씨족마을로서 약 6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입향조(入鄕祖)는 경주 손씨인 해민공 손소(1433~1484)이며, 그의 차자인 우재 손중돈(1464~1529)과 외손인 회재 이언직(1491~1553)에 의해 마을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현재 보물 3점, 중요민속자료(단일건물) 12점, 지방유형문화재 3점 등 18점의 지정문화재와 약 30여체의 비지정문화재급 고가(古家)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마을 전체가 1984년 12월 24일에 [문화재보호법]의 ‘중요민속자료’(189호)로 지정(541,686㎡)되었다.
- 4) 1994년의 조사 결과는 강동진(1995)을 참조.
- 5) 전체 전통역사마을을 사례로 한 연구는 다수 있지만, 양동마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강동진(1997)과 이경옥(2002)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 6) 각 설문비교표에서의 음영처리 부분은 높은 빈도 또는 해석상 의미있는 결과들을 나타낸다.
- 7) 지난 8년 동안 총 15가구가 전입하였으며, 그 중 타성이 7가

- 구이며, 60년대(30~40대) 출생 가장을 가진 가구가 11가구에 이른다.
- 8) 지난 8년 동안 약 100여동의 주거정비가 이루어졌다.
 - 9) "큰 古家들은 해택이 있으나 나머지 집들은 불편하기만 하다. 전시 행정식의 요구를 마을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옛날 술을 사용하러든지, 현재 초가집들은 민속마을 지정 후 슬레이트집 등을 추가로 다시 개조한 경우가 많다(○원오, 남 52세)"(이경옥, 2002:32).
 - 10) 외부시설은 쉽게 노출되어 있어 주민 마음대로 불법적인 수리를 하기 곤란하다.
 - 11) 본 연구에서 '생산방식'이라 함은 모든 생계수단을 통칭하는 말이다. 즉, 농사 외에 직장월급, 노동, 가축사육, 자녀송금 등이 포함된다.
 - 12) 133가구 중(총158가구) 농업 105호(78.9%), 상업 1호, 기능공 3호, 노동 12(9.0%), 기타 2호로 나타났다.
 - 13) "1999년 5월에 7~80대 노인들이 옛날 그대로의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엿, 유과, 약과, 전과를 전통계승차원으로 특산품으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다. 그랬더니 위생과에서는 좋은 생각이라며 지원까지 해주겠다고 했으나 문화과에서 거절하는 바람에 일이 무산되고 말았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상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젊은이에게 계승시킬 좋은 기회였는데..... 그리고 양동의 청주에도 독특한 향과 맛이 있다 이것도 계승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된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석오, 남, 40대 중반)"(이경옥, 2002:56).
 - 14) 가축사육가구가 14호에서 6호로 축소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 15)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에 수립된 양동마을 보전계획에서 농기계공동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마을중심에서 이격하여 설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16) 1994년에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응답의 유형을 정리하여 항목을 설정하였으며, 2002년에도 같은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 17) 2002년 조사의 경우 응답자가 조사가구보다 더 많은 것은 두 가지 이상을 기입한 가구들 때문이다.
 - 18) 90년대까지 양동마을에서는 마을동이가 없으면 타성전입이 불가능하였고 이는 양성(兩姓)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주민간의 목시적인 약속이었고 마을의 강한 중법적 질서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동초교 폐교, 생산기반의 약화 등의 문제들과 연관되면서 이러한 약속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마을에서의 민박은 공식적으로 현재에도 불가능하다).
 - 19) 양동마을의 경우에도 현재 마을에서 활동 중인 마을해설사들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단체인 (가칭)양동마을을사랑하는모임을 올해(2003년) 안에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모색, 2002 UN 문화유산의 해 기념심포지움, 109-123.
2. 강동진(1997) 경주 양동마을의 해석과 보전방법론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강동진(1995) 역사환경관련법이 농촌지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경주 양동마을 및 인동마을을 사례로, 국토계획 30(3): 107-133.
 4. 경주시(2001) 양동마을 정비계획 요약보고서.
 5. 경주군(1994) 양동민속마을 정비계획 조사보고서.
 6. 경상북도(1979) 양동마을 조사보고서.
 7. 김광언(1970) 경북지방의 고가옥에 관하여, 문화인류학 3: 15-27.
 8. 김덕현(1989) 최근 한국촌락의 경관변화에 대한 이해, 문화역사지리 1: 23-38.
 9. 김정기, 김광언(1971) 경북지방의 고가옥(孔版), 서울: 문화재관리국.
 10. 김춘동(1993) 한국 농촌의 사회경제적 변동과 정치적 과정: 경남의 한시절채소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김태영(1973) 농지개혁이 촌락사회의 구조변화에 미친 영향: 양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북대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17: 111-120.
 12. 문옥표(1995) 일본의 농촌사회,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3. 박재서(1990) 관광지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송성인(1984) 관광지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시의 5개 임해 중심지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여영부(1971) 한국 동족집단의 갈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인문과학연구소(1990) 良佐洞研究,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7. 여중철(1974) 동족집단의 제기능, 문화인류학 6: 109-130.
 18. 여중철(1975) 동족부락의 통혼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여중철(1980) 취락구조와 신분구조, 전통적 생활양식연구(상): 한국의 사회와 문화 2편,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 이광규, 여중철(1977)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북편), 서울: 문화공보부.
 21. 이경옥(2002) 전통마을의 관광자원화 과정에 나타난 주민의 태도 -경주 양동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이장기(1990) 양동의 사회생활 『良佐洞研究』,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23. 장수근, 맹인재(1972) 양동마을(孔版), 서울: 문화재관리국.
 24. 최재석(1972) 농촌의 반상관계와 그 변동과정, 진단학보 34: 149-185.
 25. UNESCO한국위원회와 ICOMOS한국위원회(2002) 전통역사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 2002 UN 문화유산의 해 기념 심포지움.

인용문헌

1. 강동진(2002) 지속가능한 전통역사마을을 위한 법제도 방향

원 고 접 수 : 2003년 6월 28일

최종수정본 접수 : 2003년 8월 14일

3인익명 심사필